

#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승호<sup>1</sup>, 이정원<sup>2\*</sup>, 김창태<sup>2</sup>

<sup>1</sup>동의대학교 보건학과 박사과정, <sup>2</sup>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Seung-Ho Shin<sup>1</sup>, Jeong-Won Lee<sup>2\*</sup>, Chang-Tae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ine, Dong-eui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Dong-eu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경북지역 소재 각각 1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27명의 설문조사를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공 만족도 3.91점, 전공 몰입 3.69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값 보다 높았다. 둘째,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진학 동기가 본인의 의사일 때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가 높았다. 셋째,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으로는 학교생활 만족도의 만족, 진학 동기의 본인 의사, 평균성적의 상위권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26.0%를 설명하였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65.4%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향상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ir chosen major affected the outcome of their future engagement in the major. The survey included 127 nursing students at two nursing colleges, each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buk-do, and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Our results indicate that scores achieved for level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and engagement in the major were both higher than the mid value on a 5 point Likert Scale, being 3.91 and 3.61, respectively. Moreover,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resulted in good health of the student. The student was self-motivated when applying to enter the school when level of satisfaction and engagement in the major was high. Engagement in the major was also predicted to be affected by other factors (accounting for 26%), in the following order: being satisfied with school life, self-motivated when applying to the school, and having a high average grad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btained by adding sub-variables pertaining to major satisfaction, 65.4% factors predicted to have an effect were general satisfaction as well curricular and relational satisfaction.

**Key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Engagement, Nursing, Nursing jobs.

## 1. 서론

대학생은 초기발달과정을 경험하고 후기 발달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한다. 이중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

### 1.1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제1저자 신승호의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 Jeong Won Lee(Dong-eui Univ.)

email: leejw@deu.ac.kr

Received April 14, 2020

Accepted July 3, 2020

Revised July 2, 2020

Published July 31, 2020

한 학문과 함께[1], 간호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 및 자질 함양에 필요한 교육도 받는다[2]. 간호 교육은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비중이 크고[3], 향후 전문적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이 중요하다[4].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나 몰입은 대학 생활의 주요한 영역이 되었다[5].

전공 몰입이란 전공 분야에 대해 빠져 있는 애착의 상태로[6], 전공 몰입 경험은 배움의 열망과 호기심을 일으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의 원동력이 된다[7]. 간호 교육은 성과 중심 교육 강조에 따라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전공 몰입의 개념에 관심이 쏠렸고[8], 높은 학업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9]. 이처럼 전공 몰입은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을 증진하므로 전공 교육에 몰입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직관을 가진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전공 만족은 다양한 기회로부터 자아 인식이나 진로 인식이 자기성찰을 통하여 결정되는 과정으로[10],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 미래 직업에 대한 기준이 된다[11]. 전공 만족도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지만, 불만족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된다[12].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에게 전공 만족도는 간호사 준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식 만족은 전공학과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이다[13]. 일반만족은 전공학과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만족도이며, 교과 만족은 전공과목의 편성이나 교과와 내용 그리고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의미한다[14]. 관계 만족은 학교생활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이다[15]. 이러한 의미들은 전공 만족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이다. 전공 만족은 전공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고, 전공 학습 흥미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ong 등[16]이 간호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학업 흥미, 전공 만족도, 성별로 제시하였다. Yang과 Lee[17]는 실용 무용 전공 대학생의 수업 만족이 무용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자신의 전공에 대하여 만족할 때 전공 수업에 몰입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Choi[18]는 조리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과 학습 몰입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은 관련성이 있고 간호 교육 수행에 중요한 변수로 제시됐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간호전문직관, 자아 탄력성, 대학 생활 적응, 진로 정체감, 핵심역량, 진로 준비 행동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간호 학업 수행에 중요한 전공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 몰입을 결과 변인으로 하고,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원인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공 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 설계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와 K 도에 소재한 간호학과 재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G-POWER 3.1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을

때,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alpha$ 는 유의수준 0.05, 효과 크기는 0.15, 검정력 0.85로 설정하여 계산한 결과 목표 표본 수가 10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였고 모두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12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전공 만족도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Ha[19]가 작성한 34개 문항 중 Lee[20]가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추출하여 타당화 한 18개 문항이다. 설문문의 구성은 일반만족 요인 6개 문항, 인식 만족 요인 6개 문항, 교과 만족 요인 3개 문항,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만족 요인 3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Ha[19]의 연구에서 .92이었고, Lee[20]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2.3.2 전공 몰입

간호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조사하기 위해 Kim[21]이 제작한 척도를 Kim[22]이 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조사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설문문의 구성은 단일변인 7개 문항이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척도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것이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Kim[21]이 제작당시 .97이었고, Kim[22]은 .8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협조를 구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 전에 D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Institutional Research Board, IRB) 승인(DIRB-201803-HR-E-10)을 받았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득한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응답 중 설문 참여를 거부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

며, 연구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하고,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값을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고,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127명이며 여학생이 87명(68.5%)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39명(30.7%)으로 가장 많고, 3학년 30명(23.7%), 2학년과 4학년은 각각 29명(22.8%)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72명(56.7%)이 만족한다고 하여 과반이 넘었으며, 불만족은 8명(6.3%)으로 학교생활에 대하여 불만족을 나타내는 학생은 많지 않았다. 평균성적은 중위권이 94명(74.0%)으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하위권 9명(7.1%)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40(31.5)
	Female	87(68.5)
Grade	1st	39(30.7)
	2nd	29(22.8)
	3rd	30(23.7)
	4th	29(22.8)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Dissatisfied	8(6.3)
	Average	47(37.0)
	Satisfied	72(56.7)
Grade point average	Bottom	9(7.1)
	Middle	94(74.0)
	Top	24(18.9)
State of health	Below average	59(46.5)
	Good	68(53.5)
Motivation to apply	Family's suggestion	31(24.4)
	Personal decision	73(57.5)
	Easy to find jobs	16(12.6)
	Other	7(5.5)

성적이 나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가 68명(53.5%)으로 보통 이하 59명(46.5%)보다 많았다. 진학 동기는 본인 의사가 73명(57.5%)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가족 권유 31명(24.4%), 취업용이 16명(12.6%), 기타 7명(5.5%) 순이었다[Table 1].

### 3.2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수준을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전공 만족의 하위변인 인식 만족 4.23점, 일반만족 3.80점, 교과·관계 만족 3.70점 순이었고, 전공 만족의 전체 평균은 3.91점으로 나타났다. 전공 몰입요인은 3.6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Component	N=127	
	M	SD
General satisfaction	3.80	.65
Perceived satisfaction	4.23	.60
Curriculum-relationship satisfaction	3.70	.73
Satisfaction in major	3.91	.52
Engagement in major	3.69	.65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별은 전체점수에서 남학생(M=4.04)이 여학생(M=3.85)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3.937, p=.049$ ). 학교생활 만족도는 일반만족에서 만족(M=4.01), 불만족(M=3.62), 보통(M=3.48)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12.727, p<.001$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인식 만족에서 만족(M=4.37), 불만족(M=4.08), 보통(M=4.03)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5.252, p=.006$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교과·관계 만족에서 만족(M=3.92), 불만족(M=3.56), 보통(M=3.39)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8.346, p<.001$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전체점수에서 만족(M=4.11), 불만족(M=3.75), 보통(M=3.63)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15.154, p<.001$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 성적에 따라서는 일반만족에서 상위권(M=3.95), 중위권

(M=3.82), 하위권(M=3.20)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4.749, p=.010$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하위권의 집단보다 중위권 이상 집단이 높았다. 건강 상태는 일반만족에서 양호(M=3.97)가 보통 이하(M=3.61)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10.007, p=.002$ ). 인식 만족에서 양호(M=4.34)가 보통 이하(M=4.10)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5.270, p=.002$ ). 교과·관계 만족에서 양호(M=3.98)가 보통 이하(M=3.38)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25.791, p<.001$ ). 전체점수에서 양호(M=4.10)가 보통 이하(M=3.70)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21.958, p<.001$ ). 진학 동기는 일반만족에서 본인 의사(M=4.10), 기타(M=3.82), 가족 권유(M=3.53), 취업용이(M=3.41)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6.826, p<.001$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가족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보다 본인의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인식 만족에서 본인 의사(M=4.37), 기타(M=4.30), 가족 권유(M=4.01), 취업용이(M=3.97)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3.803, p=.012$ ). 전체점수에서 본인 의사(M=4.05), 기타(M=3.91), 가족 권유(M=3.70), 취업용이(M=3.66)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5.142, p=.002$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가족의 권유나 취업의 용이성 보다 본인의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전공 몰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만족(M=3.93), 불만족(M=3.55), 보통(M=3.35) 순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였다( $F=13.600, p<.001$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보통의 집단보다 만족한다는 집단이 높았다. 평균성적은 상위권(M=3.90), 중위권(M=3.70), 하위권(M=3.07)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F=5.645, p=.005$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하위권의 집단보다 중위권 이상 집단이 높았다. 건강 상태는 양호(M=3.84)가 보통 이하(M=3.52)에 비하여 높았고 유의미하였다( $t=8.116, p=.005$ ). 진학 동기는 본인 의사(M=3.87), 기타(M=3.51), 취업용이(M=3.48), 가족 권유(M=3.41)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F=4.911, p=.003$ ). 사후검정 결과에서는 가족의 권유보다 본인 의사로 진학을 선택하였을 때 높았다.

### 3.4 변수 간의 상관성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 만족도( $r=.776, p<.01$ ) 그리고 하위변수 일반만족( $r=.727, p<.01$ ), 인식 만족( $r=.460, p<.01$ ), 교과·관계 만족( $r=.622, p<.01$ )이 전공 몰입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3. Differences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Engagement with Maj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		Satisfaction with major								Engagement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Curriculum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verall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40)	3.91±.74	1.421	4.35±.55	2.379	3.88±.78	3.472	4.04±.50	3.937	3.68±.79	.012
	Female(87)	3.76±.60	(.236)	4.17±.62	(.126)	3.62±.70	(.065)	3.85±.51	(.049)	3.69±.58	(.912)
Year	1st (39)	3.82±.74		4.26±.58		3.70±.51		3.93±.48		3.68±.64	
	2nd (29)	3.64±.61	.883	4.28±.62	.336	3.84±.59	.624	3.92±.48	.040	3.75±.58	.131
	3rd (30)	3.85±.64	(.452)	4.23±.63	(.799)	3.58±.96	(.601)	3.89±.60	(.989)	3.68±.70	(.941)
	4th (29)	3.90±.56		4.13±.60		3.68±.84		3.91±.54		3.65±.69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Dissatisfied(8)	3.62±.68		4.08±.61		3.56±.83		3.75±.63		3.55±.74	
	Average(47)	3.48±.69	12.727 (<.001)	4.03±.67	5.252 (.006)	3.39±.76	8.346 (<.001)	3.63±.48	15.154 (<.001)	3.35±.63	13.600 (<.001)
	Satisfied(72)	4.01±.51		4.37±.51		3.92±.62		4.11±.43		3.93±.54	
	Scheffe		b<c		b<c		b<c		b<c		b<c
Grade point average	Bottom (9)	3.20±.98		3.96±.64		3.72±.75		3.62±.75		3.07±.102	
	Middle (94)	3.82±.59	4.749 (.010)	4.20±.61	2.289 (.106)	3.66±.73	.682 (.508)	3.90±.50	2.677 (.073)	3.70±.60	5.645 (.005)
	Top (24)	3.95±.75		4.43±.52		3.86±.72		4.08±.46		3.90±.52	
	Scheffe		a<b,c								a<b,c
State of health	Below average(59)	3.61±.67	10.007	4.10±.60	5.270	3.38±.70	25.791	3.70±.47	21.958	3.52±.62	8.116
	Good (68)	3.97±.59	(.002)	4.34±.58	(.023)	3.98±.64	(<.001)	4.10±.48	(<.001)	3.84±.64	(.005)
Motivation for applying	Family suggestion (31) <sup>a</sup>	3.53±.72		4.01±.63		3.57±.75		3.70±.55		3.41±.79	
	Personal decision (73) <sup>b</sup>	4.00±.53	6.826 (<.001)	4.37±.53	3.803 (.012)	3.79±.71	.834 (.478)	4.05±.44	5.142 (.002)	3.87±.48	4.911 (.003)
	Easier to find jobs (16) <sup>c</sup>	3.41±.67		3.97±.75		3.60±.80		3.66±.61		3.48±.69	
	Other (7) <sup>d</sup>	3.82±.75		4.30±.49		3.59±.71		3.91±.49		3.51±.88	
Scheffe		a,c<b						a,c<b		a<b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Curriculum-relationship satisfaction, Engagement in major

N=127

Variable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Curriculum - relationship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jor	1			
General satisfaction	.822**	1		
Perceived satisfaction	.760**	.532**	1	
Curriculum-relationship satisfaction	.767**	.417**	.315**	1
Engagement in major	.776**	.727**	.460**	.622**

\*\* :  $p < .01$

### 3.5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통제변수로 일반적 특성을 더미화 하여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Durbin-Watson이 2.160, VIF가 1.057-1.76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I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 몰입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특성을 더미화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F=12.042(p<.001)$ 로 유의미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의 만족( $\beta=.320, t=3.961, p<.001$ ), 진학 동기의 본인 의사( $\beta=.268, t=3.349, p=.001$ ), 평균성적의 상위권( $\beta=.168, t=2.129, p=.035$ ) 순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6.0% 설명하였다. Model II에서 독립변수인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F=34.965(p<.001)$ 로 유의미하였으

Table 5.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on Engagement with Major

Variable	Dependable variable: Engagement with major									
	Model I					Model II				
	B	SE	$\beta$	t	p	B	SE	$\beta$	t	p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419	.106	.320	3.961	<.001	.095	.078	.065	1.096	.275
Grade point average	.278	.131	.168	2.129	.035	.139	.091	.084	1.524	.130
State of health	.189	.103	.145	1.828	.070	-.118	.076	-.091	-1.547	.124
Motivation for applying	.353	.105	.268	3.349	.001	.105	.077	.080	1.374	.172
General satisfaction						.504	.069	.507	7.281	<.001
Perceived satisfaction						.032	.068	.030	.477	.634
Curriculum- relationship satisfaction						.352	.056	.397	6.323	<.001
F(p)	12.042(p<.001)					34.965(p<.001)				
R <sup>2</sup> (R <sup>2</sup> Change)	.260					.654(.394)				
Durbin-Watson(VIF)	2.160(1.057-1.762)									

Satisfaction with campus life: Satisfied=1, Grade point average: Top=1, State of health: Good=1, Motivation for applying: decision=1, Other=0

며, 일반만족( $\beta=.507$ ,  $t=7.281$ ,  $p<.001$ ), 교과-관계 만족( $\beta=.397$ ,  $t=6.323$ ,  $p<.001$ )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설명력은 Model I 보다 39.4%(R<sup>2</sup> Change) 증가한 65.4%이었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교과목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 몰입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학 동기 등에 따라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특성에서 더미 처리된 학교생활 만족, 평균 성적, 진학 동기가 예측되었고 설명력은 26.0%이었다. 독립변수에서는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예측되었고 설명력은 39.4%가 증가한 65.4%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전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1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변인 인식 만족 4.23점, 일반만족 3.80점, 교과-관계 만족 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수준이 3.95점[23]이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그렇지만 Lee와 Ahn[24]은 임상

실습 경험이 없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97점이라 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 임상경험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공 만족도 하위변인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의 인식 만족 3.99점, 일반만족 3.84점, 교과 만족 3.73점과 관계 만족 3.54점[20]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를 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학업 과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공 몰입은 5점 만점에 3.69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Lee 등[25]은 3.13점이라 하였고, Shin과 Park[3]은 3.04점, Jeong과 Han[26]은 2.84점이라 하여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나타나지만, 전공에 몰입한다는 것은 전공 분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5]. 따라서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선택과정뿐만 아니라 적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전공에 몰입할수록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 의식과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에서 남학생과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진학 동기가 본인 의사일 때 높았다. 성별에서 Lee와 Ahn[24]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 만족도 수준이 높다 하였고, Kim과 Kim[27]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별에 따라 전공 만족도 수준이 확연

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만족과 건강 상태에서 대학생활 만족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28]는 본 연구를 지지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대상자들이 허약한 편으로 인식한 대상자들보다 전공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24]. 그러므로 긍정적인 대학 생활을 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진학 동기에서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Lee[20]는 본인의 의지 때문에 진학하였을 때 일반 만족과 인식 만족의 수준이 높다 하였다. 그리고 적성에 의한 진학이 학교 성적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한 경우보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학 시 전공과목 선택에 따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29]. 간호대학의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경우보다 수능 성적에 맞춰 합격 위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을 볼 때[28],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진로 선택자 개인의 만족 요인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19], 가족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 몰입의 차이에서는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평균성적이 상위권, 건강 상태가 양호, 진학 동기가 본인 의사일 때 높았다. Chin과 Jung[30]의 간호대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력이 높을 때 학습 몰입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학교생활에 만족할 때 전공 몰입의 수준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균성적에 따라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학습 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26,30], 본 연구를 지지하였지만, Kong 등[16]은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점이 낮을수록 높다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면서 학업성적이 뛰어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몰입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생활양식이 학습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31]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이 적성에 의한 진학이 취업 등을 고려한 진학보다 학습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들은 간호대학생이 건강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거나 본인의 적성과 간호학이 맞을 때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한 결과 일반적 특성 요인 중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평균성적이 상위권이며, 진학 동기가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였을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공

선택 동기가 자신의 적성 또는 흥미에 의해 선택한 그룹이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29], 학업성취능력으로 대변되는 적성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고 진학하지 않으면 전공 몰입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는다[6]. 더욱이 간호학 전공은 타과보다 이론과 임상 실습의 병행으로 어려운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32] 간호학 선택 시 가족이나 타인의 추천이나 중용에 의해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33].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인의 의사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을 시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진학 시 학생의 적성과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독립변수에서는 일반만족과 교과·관계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과 Cho[34]의 연구에서 일반만족, 교과 만족, 관계 만족이 학습 몰입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학습 몰입과 유의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결과와[8]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전공 만족도라는 결과와[16]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들이 전공하는 과목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전공과목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전공 만족도는 전공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5], 대학생들에게 학습 몰입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5]. 전공에 대한 몰입은 단순히 학업 수행 과정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생활 등에 관여되는 중요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에 전공 몰입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전공 몰입 경험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자기성찰로 학업성취 목표를 향상할 수 있음으로 전공 몰입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에 핵심자원이 되리라 본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위해 전공 만족도를 향상하고 전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전공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학교생활 만족과 평균성적 상위권, 본인의 의사로 간호학을 결정하였을 때와 일반만족도와 교과·관계

만족이 전공 몰입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과 간호학 선택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나 자신의 적성과 적합하여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지되거나 교수의 확고한 교수법이나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전공을 심화시킬 기회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전공과목에 몰입함으로써 진로 결정이나 미래 설계를 긍정적으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생활이나 교수와의 관계, 동료 학생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전공 몰입은 향후 국민 보건증진이나 의료서비스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지속해서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 W. Sung, O. G. Kwag, W. H. Lee,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1, No.1, pp.1-11, 2010.
- [2] E. H. Choi, Y. K. Kwag, "Application of a Simulation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f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5, No.6, pp.133-141, 2015.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5.5.6.013>
- [3] H. J. Shin, H. J. Park,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2, pp.643-664,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22.643>
- [4]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5] J. S. Kang,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on the intention to have a social welfare job,"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393-400,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393>
- [6] S. H. Nam, "Major commitment and work values.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9, No.1, pp.223-242, 2005.
- [7]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pp.235-253, 2011.
- [8]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557-1565,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 [9] J. H. L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8, No.2, pp.67-92, 2010.
- [10] A. Milsom, J. Coughlin, "Satisfaction with college major: a grounded theory study," *NACADA Journal*, Vol.35, No.2, pp.5-14, 2015.  
DOI: <https://doi.org/10.12930/NACADA-14-026>
- [11] S. K. Park,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12, No.1, pp.219-235, 2016.
- [12] D. Barron, E. West, &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No.1, pp.S1-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13]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4.
- [14] H. J. A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physical attraction awareness upon major satisfaction: focusing on cosmetology majors at graduate schools," Major in Cosmetology The Graduate School of Food & Drug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15] H. Y.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2010.
- [16] J. H. Kong, E. Y. Jung, S. A. Ahn, "A relationship among learning interest, major satisfaction, learning flow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8, No.2, pp.1-16, 2017.  
DOI: <https://doi.org/10.22143/HSS21.8.2.1>



- [17] J. H. Yang, M. Y. Lee,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on dance flow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dance major students," *Korean Journal of Dance*, Vol.17, No.3, pp.1-11, 2010.  
DOI: <https://doi.org/10.26743/kaod.2017.17.3.001>
- [18] T. H. Choi, "The effects of major selecting motivation of culinary college students on learning commitment and major satisfaction," *Korean Academy of Foodservice Industry and Management*, Vol.13, No.2, pp.5-24, 2017.
- [19]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0.
- [20]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4.
- [21]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Major i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22] K. M. Kim, "Effects of determining factors for selecting tourism major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Tourism,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23] K. S. Kang, Y. S. Ko, "Effects of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 vol.11, no.2, pp.179-189, 2016.  
DOI: <http://dx.doi.org/10.15715/kjhcom.2016.11.2.179>
- [24] H. S. Lee, S. M. Ahn, "The influence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4, pp.251-262, 2020.
- [25] K. E. Lee, S. M. Kim, E. H. Choi, "Problem solv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debrief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simulation trai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 pp.219-234, 2017.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7.17.2.219>
- [26] S. E. Jeong, J. H. Ha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leadership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4, pp.393-404,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4.393>
- [27] I. H. Kim, Y. E. Kim, "Major related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ype of major sele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3, pp.53-63, 2018.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8.18.23.53>
- [28] M. H. Nam, H. O. Kim, "Relations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 pp.263-273,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263>
- [29]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261-27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261>
- [30] E. Y. Chin, C. H. Jung, "The effect of mental well-being, professor trust, and learning flow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Health & Welfare*, Vol.22, No.1, pp.151-176, 2020.  
DOI: <https://doi.org/10.23948/kshw.2020.03.22.1.151>
- [31] M. K. Seol,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school adjustment on learning flow among adolesc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32]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6, pp.68-77,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6.68>
- [33] I. S. Park, Y. J. Han,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identity, stress management, and satisfaction for major class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7, No.1, pp.145-167, 2017.  
DOI: <http://dx.doi.org/10.35273/jec.2017.7.1.007>
- [34] Y. J. Song, G. P. Cho,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4, pp.355-374, 2015.
- [35] S. J. Lee,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2, pp.235-253, 2011.

---

신 승 호(Seung-Ho Shin)

[정회원]



- 2019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 의과학과 (보건학석사)
- 2020년 6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보건 의과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보건학, 보건의료정보

---

이 정 원(Jeong Won Lee)

[정회원]



- 2005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 의학과 (한 의학석사)
- 2008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 의학과 (한 의학박사)
- 2013년 2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보건학, 의료경영, 경영정보

---

김 창 태(Chang-Tae Kim)

[정회원]



- 1993년 3월 : 동경경제대학 대학  
원 경영학연구과 (경영학석사)
- 1997년 3월 : 동경경제대학 대학  
원 경영학연구과 (경영학박사수료)
- 2012년 2월 :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의료경영, 경영정보, 고객서비스